

최근 딸기 산업동향

작성 : 2014.8월

1. 품목개요

□ 품목분류

- 영명 : Strawberry
- 분류 :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장미과의 여러해살이풀
- 원산지 : 유럽 중부 및 남·북아메리카
- HS Code
 - (신선) 0810-10-0000, (냉동) 0811-10-0000, (일시저장) 0812-20-0000
 - (주스) 2009-80-1020, (기타조제) 2008-80-0000
- 특성
 - 잎자루는 길고 비교적 큰 3개의 잎이 달리며 각각은 둥글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 식용하는 딸기는 씨방이 발달하여 과실이 되는 다른 과실과 달리 꽃턱이 발달한 것으로 씨가 열매 속에 없고 과실의 표면에 깨처럼 분포함. 과실의 모양은 공 모양,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이며, 대개는 붉은색이지만 드물게 흰색 품종도 있음.
 - 재배종은 원예적으로 육성된 것으로 유럽이나 남·북아메리카에서 몇 종의 야생종과 교배시킨 것으로 축성 ·반축성 ·노지(露地) ·억제 등의 재배형이 있음. 대개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내부에 비닐 터널을 설치하여 보온하며 꽃을 숙아 따 주거나 봉지를 씌워서 큰 열매를 따기도 함.
 - 딸기는 과채류 중에서 저온에 비교적 강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경남)에서 무가온으로 시설재배가 용이하며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아 영양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고소득작물로서 매년 그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음
 - 재배기간이 길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물이지만, 저온에서도 생육이 양호하여 재배기간 동안 난방비 비중이 높지 않고, 수확과 선별에 드는 노동력을 제외하면 경영비가 비교적 적음

□ 주요 품종

구 분	사 진	품 종 특 성
매향 (每香, Maehyang)		국산품종으로 과실의 모양은 장원추형임 색깔은 선홍색이나 완숙되면 진홍색이 됨 당도가 높고 딸기에서 나는 향 또한 매우 좋음 비타민C의 함량은 100g당 70.7mg으로 높음 과실이 단단하여 보관이나 장시간 수송이 용이함 평균 당도는 12.0Brix(농촌진흥청) / 축성재배
설향 (논산3호)		국산품종으로 과실의 모양은 둥근 원추형임 색깔은 선홍색이나 담홍색을 띄고 있음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잘 되고 과즙이 풍부하 여 첫맛은 강하고 뒷맛은 상쾌한 느낌을 줌 즙이 많아 맛이 좋고 수량이 많으나 경도약함 평균 당도는 10~11Brix(농촌진흥청) / 축성재배
장희 (章姬, Akihime)		일본품종으로 과실의 모양은 장원추형임 색깔은 선홍색을 띄고 있음 과실이 물러 온도가 높아지면 과즙이 표면으로 배어나올 수 있으니 꼭 저온에서 보관해야 함 산도가 0.5~0.6으로 낮기 때문에 단맛이 많이 남 평균 당도는 11.2Brix(농촌진흥청) / 축성재배
육보 (陸宝, Red pearl)		일본품종으로 과실의 모양은 계란형임 색깔은 선등적색을 띄고 있음 과실의 품질은 맛이 좋고 독특한 향이 있음 과실이 단단하고 육질이 치밀해 저장성이 좋음 평균 당도는 11.5Brix(농촌진흥청) / 반축성재배

□ 작형별 출하시기

작형	육묘기	정식기	생장기	수확기	성출하기	재배지
겨울딸기	3하~9상	9중~9하	10중~10하	10하~5상	1상~2하	경남, 충남
여름딸기	3중~4하	4중~5상	5하~6중	6하~11중	10상~11중	강원

- 국내 딸기 총생산량과 시설딸기 생산량의 약 67%는 충남과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13년 딸기 생산량의 지역 비중은 경남이 34.6%로 가장 높으며, 수출량은 '13년 수출실적 기준 경남이 98%를 차지함
- 경남에서는 진주, 산청 등이 주산지이며 11~4월에 출하되는 겨울, 봄 딸기로 수출용 매향과 내수용 설향을 주로 재배하고 있음.

2. 생산동향

□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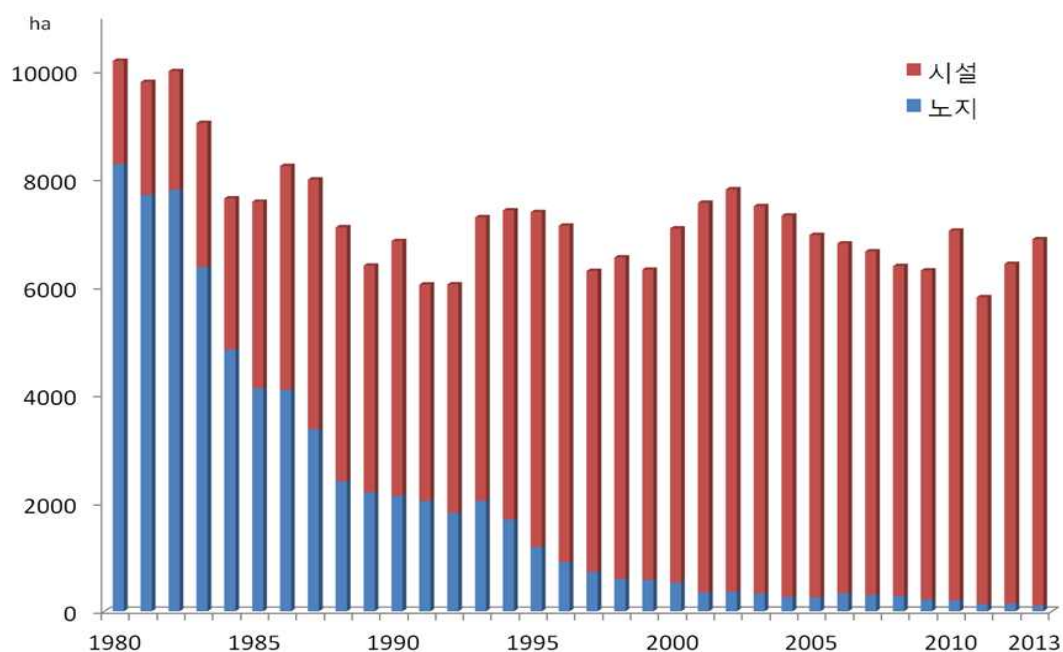
(단위 : ha, 톤)

구 분		‘10	‘11	‘12	‘13
재배면적	시 설	6,841	5,681	6,290	6,789
	노 지	208	135	145	101
	계	7,049	5,816	6,435	6,890
생산량	시 설	228,698	169,243	188,998	214,578
	노 지	3105	2,276	3,142	2,203
	계	231,803	171,519	192,140	216,8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딸기 재배면적은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재배면적의 98.5%(‘13 기준)가 시설재배임
 - 노지재배는 고령화, 시설현대화, 근교농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설재배의 경우 주로 토경재배를 하고 있으나 노동력 투입 대비 생산성이 낮아 고설(양액)재배로 전환하는 추세임

<딸기 재배형태별 재배면적 추이>



- 경남지역은 전국 딸기 수출량의 98%를 차지하여 수출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 수출용 품종인 ‘매향’의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
 - ‘13년 경남의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전국 7.1% 증가)한 2,383ha로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34.6% 차지
 - ‘13년 경남의 딸기 생산량은 73,605톤, 단수는 3,089kg/10a로 타 시도대비 높은 편이며 고설재배 등 신기술 도입과 수출용 딸기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향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 경남 재배면적: (‘10)2,279ha → (‘11)2,015 → (‘12)2,166 → (‘13)2,383

□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경쟁국과 비교, ‘09 기준)

- 10a당 생산량 : 미국 5,040kg > 일본 3,962 > 한국 3,609
 - 미국이 생산량은 많으나 비교적 품질이 낮아 생과보다 가공용이 다수
 - 생산비나 경영비가 미국에 비해 높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고 출하시기가 겹치지 않아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소득이 높음

구분	한국(축성)	미국(유기)	일본(축성)
단수(kg/10a)	3,609	5,040	3,962
kg 생산비(원)	2,467	1,752	3,358
kg 경영비(원)	1,668	1,574	
소득(천원)	7,726	1,450	14,655

자료) 주요국별 농축산물 생산비 비교, 농업경영관실(2009)

□ 지속적으로 로열티 문제가 대두면서 국산 품종 개발·보급이 진전된 결과 딸기의 국내산 품종 재배면적의 전체 78% 이상 차지

- 국산 품종 재배비율 변화(%)

구분	국산품종 (매향, 설향, 금향 등)	로열티 지불액(억원)
‘05	9.2	31.6
‘07	34.6	21.8
‘13	78.0	3.3

- 국내 품종 보급으로 증가로 로열티 비용이 감소되고 농가 순수익 증가, 수출시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있음

3. 유통 및 소비현황

□ 유통구조

○ 국내 딸기 유통비용

(단위 : %)

연도	비용별				단계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계	출하	도매	소매	계
2010년	15.5	18.5	7.3	41.3	11.7	10.6	19.0	41.3
2011년	17.3	15.1	8.6	41.0	13.4	9.7	17.9	41.0
2012년	18.2	15.0	6.9	40.1	14.2	7.2	18.7	40.1

자료) KAMIS, 국내유통실태 딸기 유통비용

- ‘10년 이후 간접비는 줄었지만 운송, 포장, 수수료 등의 고정비 성격인 직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단계별로는 출하와 도매단계에 비해 소매단계에서 높은 유통비가 더해지며 소비자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가격동향

○ 국내 도매가격 추이

(단위 : 원/20kg)

년도	2011	2012	2013	2014
딸기(상품)	9,184	9,598	8,671	9,838
딸기(중품)	7,025	7,346	6,746	7,330

자료) KAMIS, 도매정보(2011~2014.5)의 연평균

- ‘13년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 병충해가 적고 작황이 좋아 많은 출하량으로 국내시세가 낮았던 반면 생산량의 증가로 수출량은 증가
- ‘14년 상반기는 딸기 주요산지인 경남, 충남지역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예년보다 20~30%정도 감소하며 높은 시세를 나타냄

○ 수출가격 동향

- 신선딸기 수출단가는 국내 가격과 같이 출하 초기가 가장 높았다가 성출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신선딸기 연평균 수출단가는 ‘10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주 수출국 중 홍콩이 10.26USD/kg(‘13년 평균)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수출단가 : (‘10)8.53USD/kg → (‘11)9.41 → (‘12)10.43 → (‘13)10.15

□ 소비동향

- 구매형태는 소형슈퍼마켓의 구입비중이 높으며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연령대별로는 30~50대의 주부층의 구매빈도가 높음
- 국내 소비자가 생식용으로 시중에서 신선딸기를 구입하는 시기는 주로 봄철(44.8%), 겨울철(49.4%)에 집중되며 3월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가구별 월별 신선딸기 구입량>

(단위 : g)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319	756	1,176	1,531	1,341	311

자료) 농촌진흥청, 2013 소비자 가구의 과채류 구매패턴

- 규격별 구매빈도는 출하초기(12~1월)에는 높은 가격의 소포장(500g 이하)의 비중이 높으나 3월 이후 1kg의 비중이 늘어남

<신선딸기 규격별 구매빈도>

(단위 : %)

구분	전체	500g미만	500g	500g초과 ~ 1kg미만	1kg	1kg초과 ~ 2kg미만	2kg	2kg초과
신선딸기	100	2.6	34.2	10.0	41.7	2.2	7.5	1.8

자료) 농촌진흥청, 2013 소비자 가구의 과채류 구매패턴

4. 수출동향

□ 연도별, 국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10		'11		'12		'1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952	25,175	2,047	19,258	2,152	22,441	2,815	28,559
홍콩	831	7,245	790	6,630	790	8,050	1,040	10,668
싱가포르	1,502	11,260	648	5,213	755	6,993	955	9,267
말레이시아	256	2,140	207	1,645	227	2,046	362	3,226
태국	111	989	127	1,210	138	1,556	241	2,574
일본	155	2,600	192	3,534	158	2,731	79	1,145
기타	97	941	83	1,026	84	1,065	138	1,679

자료) KATI

- 90년대 우리나라의 신선딸기 주 수출대상국은 일본
 - 90년대 초부터 ‘여봉’ 품종을 중심으로 수출되다가, ‘98년 레드펠(육보)의 도입으로 수출량이 급증하여 2001년에는 약 1,500톤에 이르렀음
- ‘02년부터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100여톤까지 감소
 - 일본의 경기침체와 엔저, 수출품종(레드펠)의 로열티 분쟁과 수출품에 대한 생산이력제도 요구, 일본 내 생산량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
- ‘06년경부터 일본시장을 대체하여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여 ‘09년도에 2,000톤 돌파하고 홍콩, 싱가포르가 주력시장으로 자리 잡음
 - ‘13년 수출실적 중 홍콩(36.9%), 싱가포르(33.9%)가 수출량 기준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강원도 고랭지의 여름딸기가 가공용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3% 내외로 낮은 수준
 -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진주시가 80% 이상, 국산 수출품종인 매향이 수출되고 있음
 - 최근에는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항공물류를 통한 원거리 수출확대로 러시아지역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미국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음
 - 주 수출국인 홍콩의 잔류농약규제 시행(2014.8.1)에 따라 지속되던 수출실적 증가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